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며

포교가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마음으로 전법의 서원을 실천하는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포교사단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제 만능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명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재가불교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교사 여러분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양이나 특성에 따라 포교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포교는 불교 그 자체이자 불교의 미래입니다. 포교는 남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더불어 나도 행복해지는 자리이타의 길입니다. 따라서 포교란 강한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화무십일홍이라 꽃도 열흘을 못 갑니다. 하지만 뿌리가 건설하면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력이 없는 사람은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서 원력으로 하면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포교사 여러분들도 부루나 존자와 같은 원력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참다운 포교사의 길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나는 바람과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길입니다. 좋은 나무들이 모여서 좋은 숲을 만들듯 다시 10년, 100년을 내다보며 신나게 포교하는 포교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2010)년 3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